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23(금) ~ 2022.12.29(목)

제공일시 2023 01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12.23(금) ~ 2022.12.29(목)

제공일시 2023 01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EU, 포장재 재활용 촉진 규제 강화

- 유럽연합(EU)이 포장재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여 오는 2030년부터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만 판매·사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공개함 (더구루, 2022.12.24) 홍성환 기자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존 포장·포장재 폐기물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촉진 ▲과도한 포장 제한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포장재 재활용 표시 EU 공통 라벨 채택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EU 내 유통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생산돼야 하며,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2차 원자재(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재활용 원재료 사용 비율에 따라 ERP 분담금 역시 다르게 적용될 예정임
- 2030년부터 PET 접착민감성 포장재 30%, 기타 폴리머 접착 민감성 포장재 10%, 1회용 음료 용기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35% 최소 비율을 설정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2. 2023년 미국 ESG 비판 더 강해질까

- 로이터는 2023년 ESG 전망에 관련하여 이미 여러 주에서 금융관련 ESG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도 2023년에도 미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음 (로이터, 2022.12.27)  
Ross Kerber, Isla Binnie, Simon Jessop 기자  
(CNBC, 2022.12.27) Tim Mullaney 기자
- 시장 주요전문가들은 블랙록이 주총에서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할지 지켜볼 전망이다며, SEC의 기후공개 규칙 결과, '그린워싱' 억제 노력 등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함
- 일각에서는 ESG문제가 현실적이기 때문에, 기업은 마케팅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서 ESG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하가 적은 단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CNBC에서는 ESG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기업이 포트폴리오가 주가 대비 수익률을 갖는 것처럼 ESG점수를 갖는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또다른 지표로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적었음

### 3. 美 에너지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더 늘려야”

-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의 22-27%, 니켈의 40-46%, 코발트의 45-52%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2.12.27) 김진영 기자
- 현재 미국은 전 세계 배터리 원자재의 약 7% 만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80%를 보유하고 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원자재 공급이 필수적임
- 미국 에너지부의 ReCell 센터는 2019년부터 효과적이고 저렴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배터리 설계, 재활용과 재사용 프로그램에 2억 달러(약2554억원)(배터리 수집 및 재활용 프로그램에 1억1000만 달러(약1404억원), 소매업체 배터리 수집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약191억원), 리튬 이온 배터리 재활용에 1000만 달러(약127억원)를 지원함
- 최근에는 10개의 재활용 및 용도변경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과 시연을 위해 총 7400만달러(약 944억원)의 자금을 지원함

## 1. [미리 보는 CES 2023] <2> 친환경·연결성 새 패러다임 제시

- 글로벌 가전시장 최대 축제인 CES 2023에서 지속가능성과 변화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혁신 제품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기조연설로는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존디어’의 존메이 CEO가 하기로 돼있는데, 존디어는 농업데이터를 통해 작물 스캐닝, 자율주행 농기계운영, 토지샘플링 분석, 날씨와 습도 분석 등을 통해 관리비용 절감과 생산량을 증가시켜 농업혁신을 일으킨 대표적 회사임
- 삼성전자는 ‘스마트싱스(Smart Things)’를 활용한 에너지관리서비스(스마트싱스에너지), 엘지전자는 ESG존을 마련했음
- 가전분야의 연결성도 CES2023의 최대 이슈로 올해 올해 홈IoT 표준 '매터' 발표와 글로벌 가전 연합체 'HCA'의 기기 연동 착수 등 연결성 확대 시도가 본격화되면서 적용 사례와 성과 등이 공유될 것으로 보임

(전자신문, 2022.12.26) 정용철 기자

## 2. 엑손모빌, 횡재세 ‘반기’…EU에 “안 내겠다” 소송

- 미국의 최대 에너지 기업 엑손모빌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횡재세’를 부과하겠다는 EU에 반기를 들었음
- 엑손모빌은 28일(현지시간), 독일과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으며, 소장에는 EU의 횡재세 부과가 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이 담겼음
- 케이시 노튼 엑손모빌 대변인은 엑손모빌은 지난 10년 동안 유럽 사업에 30억달러(약 3조9000억원)를 투자,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 노튼 대변인은 유럽 대륙에 예정했던 수십억유로 규모의 신규 사업 투자를 전면 재고할 계획이라며, EU가 횡재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투자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경고를 날렸음

(한국경제, 2022.12.29) 김리안 기자

## 3. “그린시프트·넷제로… 정부 역할 가장 중요”

- RE100을 이끄는 클라이밋그룹 마이크 피어스 시스템전환 이사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은 100% 재생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하고 싶어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말했음
- 피어스 이사는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환경에서 해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경쟁사가 RE100을 이행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외면한다면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더해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대한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동등한 수준에서 경쟁하지 못한다면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그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신호가 필요하다”며 ‘그린시프트’를 위해선 그에 맞는 정부의 정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2022.12.27) 이새하 기자

## 1. '원전=친환경' 확정...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개정지침' 공개

- 환경부는 23일,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음
- 개정 지침은 원전 신규 건설 등을 친환경으로 간주했으며,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음
-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과 관련해서 초안에 없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을 인정기준으로 추가했고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이 전환부문 활동이 되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도록 했음
- 초안에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했던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관련 활동은 빠졌고, 환경부는 개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아주경제, 2022.12.23\) 조현미 기자](#)

## 2.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탄소저감 기술개발·녹색금융 지원

- 정부는 국내 기업의 CBAM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조속한 탄소저감 기술개발로 탄소 규제를 기회로 전환하기로 했음
- 단기적으로 현 설비 조건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공정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 수출기업의 CBAM 대응역량을 강화할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 수출설명회 등으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 및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제인정기구 가입도 추진함
- 아울러,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 지원을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9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발적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한 배출권 시장 활성화도 추진함

[\(정책브리핑, 2022.12.26\)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이데일리, 2022.12.26\) 김형욱 기자 \(아시아경제, 2022.12.26\) 송승섭 기자](#)

## 3. ESG 정책 컨트롤타워 생긴다...민관합동 협의회 내년부터 가동/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나온다...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ESG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내년 부터 가동함
- 정부는 27일 발표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 내년 초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음
- 정부는 우선, 글로벌 기준에 맞춰 자본시장법령 등을 손질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음.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 가점 부여, 금융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함
- 또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내년까지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또, 파리기후협약 지수 등 다양한 ESG 관련 지수를 개발함

[\(연합뉴스, 2022.12.27\) 차지연 기자 \(연합뉴스, 2022.12.27\) 최욱 기자](#)

## 1. “전기차 충전시장 잡아라” 풀액셀 뺏는 IT업계

- 정보기술(IT)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을 낙점하고 관련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음
- 시장에 아직까지 뚜렷한 선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업체들이 저마다 차별점을 내세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임
- 이동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서비스명을 '볼트업(VoltUp)'으로 확정하 데 이어 2023년 조직개편에서 'EV충전사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 유통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도 전기차 충전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데, 롯데정보통신은 사용자 앱, PC 웹, 충전기를 통합 연결하는 충전 운용 플랫폼인 ‘이브이시스(EVSIS)’를 출시함

(매일경제, 2022.12.26) 우수민 기자

## 2. “기업 탄소발자국 데이터 교환 플랫폼 만드는 중”\_바스프 디지털 전략 디렉터

- 알레산드로 피스틸로 바스프 디지털 전략 프로젝트 디렉터가 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공급망 내 기업들이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음
- 바스프는 2007년부터 개별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을 시작해 이듬해 글로벌 산업계 최초로 탄소 발자국 보고서를 내놓고 있음
- 탄소발자국 보고서를 통해 원재료부터 최종 생산품, 사용 후 폐기물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단계별로 측정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데 공을 들이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인 ‘제품 탄소 발자국(PCF)’은 약 4만5000개에 이르는 전 제품의 자원 채굴부터 공장 출하까지, 모든 공급망에서 발생한 탄소 발자국 정보를 제공함

(한국경제, 2022.12.29) 민경진 기자

## 3. 롯데정밀화학의 ‘수소 사업’ 청사진...“2030년까지 청정수소 120만톤 생산”

- 롯데정밀화학이 ‘수소 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와 ‘정밀화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고, 13일에는 사우디로부터 청정 암모니아 2만5000톤을 수입함
- 이번 수급을 기점으로, 암모니아 수소의 개질 기술 상용화 등 수소경제 촉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임
- 롯데정밀화학은 동아시아 1위 암모니아 유통 기업으로 현재 사우디로부터 연간 50만톤 규모의 암모니아를 수입하는 최대 바이어가 되어 앞으로 사우디 투자부는 정밀화학 제품뿐 아니라, 향후 롯데 화학군의 다른 고부가 제품으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PAX경제TV, 2022.12.26) 박나연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12.23(금) ~ 2022.12.29(목)

제공일시 2023 01 0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2023년, 전기차의 해 기대되지만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 약해질 우려 있어

-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1일(현지시각) 전기차 시장이 2023년에 더욱 활기를 띠겠지만, 구매력은 약하리라고 예견함. 구매력이 약한 이유로는 보조금의 점진적인 축소로 인한 전기차 가격의 상승이 꼽힘
- 블룸버그는 2023년에 20개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약 4만달러(약 5000만원)대의 가격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함. 닛산은 4만3190달러(약 5500만원)에 아리아라는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고, 쉘보레는 4만5000달러(약 5700만원), 베트남의 빈패스트는 4만700달러(약 5200만원)짜리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임
- 대형 전기차도 등장함. GMC의 허머, 렉서스의 RZ, 폴스타의 폴스타3,4, 메르세데스 벤츠 EQ와 같은 SUV, GM의 실버라도라는 픽업트럭이 출시를 앞두고 있음. 전기차에 대한 선택지가 올해 두 배로 늘겠지만, 가격이 상승하여 구매와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 S&P글로벌 모빌리티는 2023년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4%인 10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측함. S&P는 전기차 열풍이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함
-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2022년에 7% 상승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배터리 공급망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기차 가격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글로벌 모빌리티의 분석가인 크리스 흡슨은 "미국 소비자들은 움츠러들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전기차 수요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블룸버그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서 평균적으로 25~50%가 관심이 있음으로 나타나지만,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를 사용하기 원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함
- 주요 시장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흔들리고 있음. 기업은 전기차 가격에 보조금을 반영해 책정해왔기 때문에, 판매가를 낮춰서 고객 수요를 높이는 전략을 취해왔음. 중국은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함. 중국은 2009년 전기차 보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왔음. 코트라는 2021년까지 중국 전기차 업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1600억위안(약 29조5280억원)으로 집계함
-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에 보조금을 2018년도보다 40%, 2022년에는 2021년보다 30%를 더 줄임. 보조금 지급 기준도 높였음. 2018년에는 항속거리 150km인 차량에서 2019년 250km, 2021년에는 300km 이상인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함
- 코트라는 중국의 전문가들이 보조금 폐지로 인해 시장에 변곡점이 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음. 이는 중국이 자국의 전기차 경쟁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풀이됨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한국과 유럽 등 주요 교역국이 IRA를 WTO에 위반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보조금 기준을 다소 완화함
- 유럽과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IRA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백악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음
-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공개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에서 상업용 전기차를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납세자가 구매한 차량'이라고 정의함. 이는 딜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법안-리스-렌터카 등을 상업용 전기차로 분류한 것임

(인팩트온, 2022.01.03) 송준호 기자

- 재무부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동맹국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분석됨. 한국의 전기차 그룹은 이 조치로 인해 상업용 전기차에서는 보조금 대상 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됨.. 현대차그룹은 현재 5%가량인 리스 판매 비중을 30%로 높일 계획임